
	<h1>보 도 자 료</h1> <h2>10.22(목) 10:00부터 보도가능</h2>	
--	---	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	* 과제별 소관 연락처는 [붙임] 본문에 표기
	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	
책 임 자	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	담당자
	김성조 팀 장 (2156-8003)	
	김정명 팀 장 (2156-9689)	
	진선영 팀 장 (2156-9825)	
	오화세 팀 장 (2156-9630)	
배 포 일	이성원 팀 장 (3145-8855)	대변인실(2156-9543~48) 공 보 실 (3145-5789~92)
	홍영기 부국장 (3145-8202)	

제 목 : 현장점검반 8월중 (16~18주차) 건의사항 회신결과

1.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

- 4.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9월말까지 총 23주간 227개 금융회사를 방문, 2,845건의 건의를 받음

< 1~23주차 접수현황(잠정) >

(단위: 건,%)

건의사항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현장답변	215	95	57	187	554(20%)
② 법령해석, 비조치	8	57	68	44	177(6%)
③ 관행·제도개선	270	764	572	508	2,114(74%)
합계	493	916	697	739	2,845(100%)

2. 16~18주차 (7.21~8.18)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

- 16~18주차 건의사항 214건은 ①현장 답변 43건, ②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37건 ③관행·제도개선 134건이며, 이중 관행·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 완료

- 회신한 관행·제도개선 과제 134건중 5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8% 수준
[1~18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5%(1,885건 중 848건) 수준]

(단위: 건,%)

회신결과 분류	권역별(건)				합계(비중)
	은행·지주	보험	금융투자	비은행	
① 수용	6	25	12	8	51(38%)
② 불수용	5	20	20	15	60(45%)
③ 추가 검토	1	8	5	9	23(17%)
합계	12	53	37	32	134(100%)

3. 16~18주차 (7.21~8.18)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

-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'손톱 밑 가시'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<별첨 참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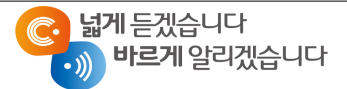
- 그간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,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
- ☞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

- ※ 16~18주차 관행·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금융규제민원포털 (<http://better.fsc.go.kr>)에 공개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

◆ **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'손톱 밑 가시'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**

☎ 담당 : 금융위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(2156-9812)
구체적 사례관련 질의 : 금투협 이동하 과장(3145-8868)

□ **(배경)** 외국 연기금·펀드 등이 증권회사를 통해 국내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, 여타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

○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 매매 주문시, 동 거래는 통상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(외국계 지점 포함)를 차례로 거쳐 체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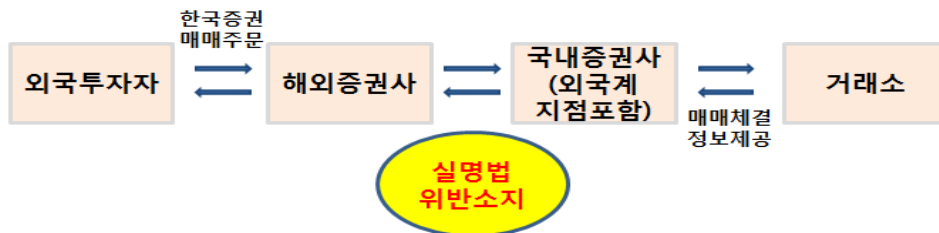
○ 이후 동 거래 정보는 역방향으로 다시 투자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국내증권사가 투자자 동의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해외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은 실명법에 위반될 소지*

* 실명법 제4조 :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○ 이에 따라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는 외국 투자자의 매매 주문시 일반적으로 '정보제공 동의서' 제출을 요구

⇒ 이는 세계 유례없는 낯선 절차로 이를 기피하는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울러 한국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

< 외국투자자 국내증권 투자 흐름도 >



□ **(제도개선 내용)** 외국 투자자의 증권 매매 체결 정보는, 국내 증권사와 해외 증권사 간에 투자자 동의 없이 제공이 허용되는 정보*로 인정하여 동의서 징구 의무를 폐지

* 실명법 제4조 1항 5호 : 동일한 금융회사 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경우 동의서 불필요

□ **(기대효과)** 그간 낯선 제도로 인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외국 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여타 국가에 비해 어려운 투자절차 개선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 개선

○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수익성 개선에 도움